

남가주 교회 및 단체, 장학생 모집

ANC 온누리 장학생 6/15 마감

2006년부터 시작된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장학회는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ANC 장학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나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학업을 장려하고 장래의 크리스챤 지도자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ANC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ancsf.us)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마감은 6월 15일(오후 11시 59분 서부시간)이다.

지원자는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미국주소와 미국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학생이어야 하고, 목회자 자녀 또는 선교사 자녀에게는 가산점이 있다.

지원서는 ANCSF.US 웹사이트에서 구글 폼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성적 증명서, 추천서(지도교수 및/또는 목사), 신앙에 대한 개인 간증(약 500단어) 등을 모두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상자 발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있으며, 수여식은 8월에 진행된다.

지원 자격: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고등학생(정규 학생).

대학원 과정에 입학한 학생(정규 학생)

문의: 818 834 7000



제26기 충현 장학생 5/31 마감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장학부에서 장학생을 모집한다.

1. 일반 장학금: 기독교 신앙이 돈독하며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 2. 박태용장로 장학금: 대학 재학 이상,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육성 3. 신상우목사 장학금: 선교사의 자녀들을 Christian Global Leader들로 육성

지원 자격은 ▲세례 받은 자로서 교회 출석자 ▲정규 4년제 대학 및 신학교의 재학생이나 입학이 허가된 자(박태용장로 장학금: 2년제 초급대학 재학생 포함)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

▲프로필 사진(흰색 배경의 최신 사진) ▲학업 성적 증명서 사

본(PDF) ▲2023년 세금 보고서

사본(PDF) ▲목사/장로 추천서

(PDF) ▲두 개의 에세이: (1) 신앙 간증: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영접한 후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간증. (2) 비전 선언문: 그리스도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계획과 비전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마감: 5월 31일(토)

장학금 수여 예정일: 2025년 7월 27일(주일)

문의: scholarship@choonghyun.org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6/20 마감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임학준 목사) 장학위원회가 오렌지 카운티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2025

해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테페(OTEFE) 재단 장학생 5/23

오테페(OTEFE) 재단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대학(원) 재학생 또는 올해 입학 예정자이며 마감은 5월 23일이다.

미국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국계 미국인 학생, 재외동포 학생, 또는 한국 발전에 헌신하는 비한국계 학생이 교육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otefe.org>) 참고.

호프 장학금 6/6 마감

학생당 \$2,500이 수여되며, 접수마감은 6월 6일(금)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이다. 신청은 뱅크 오프 호프 웹사이트(bankofhope.com/ko/hope-scholarship)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문의: 949-380-7777, www.lagunachurch.com/

▶부모/보호자의 2024년 소득세 신고서,

▶추천서: 추천인이 직접 작성해 hope_scholarship@bankofhope.com으로 바로 보내야 한다. ▲학교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의 비공식/공식 성적 증명서(PDF 파일로 스캔), ▲에세이(PDF 형식)를 제출해야 한다.

미주합동총회, 제 26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총회장 하재식 목사 부총회장에 박경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USA)가 제 26회 정기총회를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전 15:1-11)란 주제로 6일부터 8일까지 사랑한인교회(하재식 목사)에서 개최했다.

직진 총회장 최순길 목사는 6일 개회예배 설교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총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 받은 자들로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총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 26회 신임 총회장에는 지난 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가 제 26회 정기총회를 6일부터 8일까지 사랑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하재식 목사. © 기독일보

기 부총회장이었던 하재식 목사(사랑한인교회)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다. 신임 목사 부총회장에는 박경일 목사(예수큐뮤니티교회), 신임 장로부총회장에는 박영근 장로(필라델피아 복음장로회) 서기 이종희 목사, 부서기 장동익 목사, 회의록서기 윤석재 목사, 부회록서기 전대영 목사, 회계 강신억 목사, 부회계 최인환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루벨 장로교회) 서기 이종희 목사, 부서기 장동익 목사, 회의록서기 윤석재 목사, 부회록서기 전대영 목사, 회계 강신억 목사, 부회계 최인환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토마스 맹 기자

→ 1면 기사 <현팅턴 비치...침례>에 이어서 주최측은 "이 행사는 상징적이고 전략적이며, 부흥과 국가적인 영적 쇄신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세례를'(Baptize America) 행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회들을 공통된 신학적 실천, 즉 물세례를 통한 공적인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전국의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 대사명의 성취를 추구하는 캠페인이다. 주최 측은 6월 행사가 미국 전체의 회개와 변화로 번져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캘리포니아에서 행하실 수 있다면, 어느 주에서도 행하실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행하실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행하실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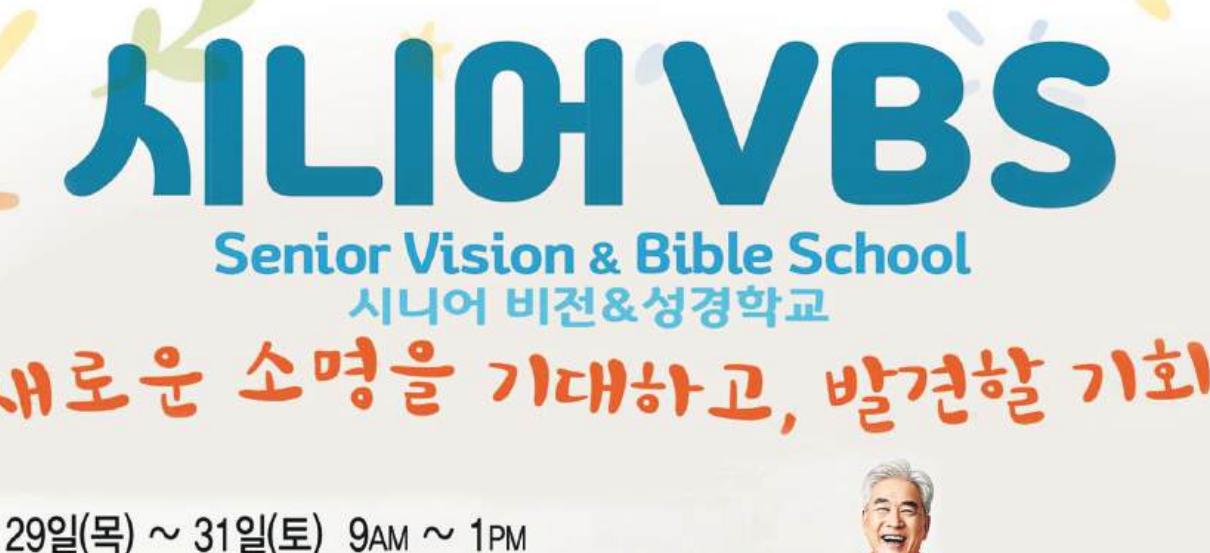
'미국에 세례를'(Baptize America) 캠페인 운영팀은 미 전역에서 6월 8일 운동에 참여할 교회를 모집 중이다.

프랜시 목사는 과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이 캠페인을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싶다"며 "약 2년 전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 '지역 교회를 위해 세례를 장려하라'는 환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바람은 오순절을 기독교 세계가 물세례를 기념하는 날로 만드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고, 그 모임은 광장에서의 담대한 설교로 이어졌으며, 그 설교는 3천 명의 공개적인 신앙 선언으로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주최측은 현장에서 세례받은 각 사람에게 지역 교회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교회와 연결해 주고 있다.

프랜시 목사는 "우리의 목표는 지역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함께 일하고, 세상에 진정으로 다가가고, 지역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을 연결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례받은 사람의 수보다 세례받은 사람을 지역교회와 연결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간

5월 29일(목) ~ 31일(토) 9AM ~ 1PM

등록문의

714.871.8320 / 등록비: \$20(재료비 별도)

등록대상

65세 이상 남녀 시니어

강의내용

- 인생 완성학(실록 김 박사)
- 황금기 선교사로 살기(이성희 박사)
- 인생 리부트: 홍해 체험활동(김세나 박사)
- 조약돌 Art
- 도자기(꽃) Art
- 손글씨 Art
- 환경 사진 & 영상

선택강좌



KPCA “동성애자 성직 안수·결혼 주례 불인정”

해외한인장로회 제49회 총회
‘성소수자 목회 지침서’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7-8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제49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날 ‘미국 장로교(PCA)와의 협약 관계에 대한 총회 청원서’가 보고됐다.

이는 서북남노회와 로스앤젤레스 노회에서 최근 PCUSA가 지역 교회들이 LGBTQIA+ 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PCUSA와 협약 관계인 KPCA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헌의안이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재검토 및 재평가 ▲PCUSA로부터 명확성 요청 ▲우리의 입장 재확인 ▲신학적 틀 확장 ▲KPCA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에 대한 지침 제공이다.

이에 대해 KPCA 제49회 총회에선 ▲재검토 및 재평가 ▲PCUSA로부터 명확성 요청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 사항은 ‘동성애 관련 목회적 도움 위원회(2024-2025)’에서 작성한 ‘성소수자(동성애) 관련 목회 지침서’로 갈음

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서는 “해외 한인장로회(KPCA)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스러운 결합으로 보는 전통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성경적 교훈과 총회의 결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7-8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담임 김주용 목사)에서 제49회 총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의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한 성직 안수와 성소수자 결혼 주례를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 이번 총회에서 항존적의 시무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개정하는 내용

의 헌의안은 부결됐다.

다음은 ‘성소수자(동성애) 관련 목회 지침서’의 요약이다.

I 목회 지침의 기준

2024년 5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교단은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목회 지침을 마련했다.

성경적 입장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 사회와 법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

도록 목회자들에게 실질적 지침 제공을 목표로 한다.

1. 성경적 결혼의 정의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성경 해석을 고수한다. 동

성 결혼 및 성소수자 성직 안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II. 성소수자 관련 목회 지침

1. 성소수자에 대한 성경적 입장

성소수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

원의 대상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 기준에 따라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죄로 간주된다. 본 교단이 인정하는 혼인은 성경적 기준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한정 한다.

지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2. 교회 행정 및 윤리 지침

교회의 윤리 강령과 일관성 있게 본 지침서를 구성했다. 성소수자 교인의 등록, 성례 참여, 결혼 주례 요청 등은 교회 당회와 노회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3.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

어린이·청소년 교육에서 성경적 성·결혼관을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성소수자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을 사랑과 진리로 인도해야 한다.

4. 법적 고려사항

성소수자 결혼에 따른 교회 시설 사용 및 주례 여부는 지역 법률에 따라 교회와 노회가 판단한다. 미국·캐나다 등 지역별 법 차이에 유의하며, 필요 시 법률 자문을 권장한다.

III. 결론

본 지침서는 교단의 성경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목회자들이 성소수자 관련 사안에 일관되고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돋기 위한 도구로 개별 사안은 노회 또는 총회에 자문할 것을 권장한다.

노형구 기자

YouTube 방송 제작 무료 오픈 강좌

5월 17일(토) 1시 30분
글로벌 비전 대학

글로벌 비전 대학(Global Vision University, 대표: 제임스 구 교수)이 조보자를 위한 무료공개 YouTube 방송 제작 오픈 강좌를 준비했다.

글로벌 비전 대학에서는 5월 17일(토) 오후 1시 30분에 YouTube 방송 제작을 위한 강좌를 제공한다. 신청은 웹사이트 (<https://global-vision.university/>)를 통해 할 수 있다.

무료 공개 강좌 후 3주간(5/24, 31, 6/6) 매주 토요일에는 YouTube Studio - ATEM, 프로프리젠테(Pro Presenter) 활용 강좌가 진행된다.

이 특별 강좌는 유튜브 채널 운영의 핵심 기능들을 마스터하고, 콘텐츠 제작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 기존 채널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YouTube Studio 활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 20분 ~ 3시 50분까지이며, 신청비는 \$200이다. 자체 Studio 제작 참여를 통한 체험 학습을 하게 되며, ATEM, Pro Presenter 활용 등을 배우게 된다.

주소: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문의: 949-667-0264, 714-393-4595 (텍스트 가능)



려움을 느끼시는 분, YouTube Studio 활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 20분 ~ 3시 50분까지이며, 신청비는 \$200이다. 자체 Studio 제작 참여를 통한 체험 학습을 하게 되며, ATEM, Pro Presenter 활용 등을 배우게 된다.

주소: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문의: 949-667-0264, 714-393-

연세대 140주년 기념 미주 조찬기도회 성료

미주 동문들과 지역사회 위한 기도와 나눔 지속

5월 10일, 미주 연세조찬기도회(회장 서문준)는 연세대학교 개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미주 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조찬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연세 동문들과 교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모교의 발전과 세계 속의 사명 감당을 위해 뜻을 모으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설교는 남가주 임마누엘교회의 문두진 목사가 맡아, 마태복음 5장 38절~42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

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목사는 “억울함을 참아내고, 원수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것이 진정한 제자 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주 연세조찬기도회는 연세대학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다. 연세대학교 140주년 기념 미주 조찬기도회는 연세대학교 정신을 계승하고, 미주 내 동문들과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와 나눔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민선 기자



남가주 헬로십 교회 창립 31주년

포모나에 있는 남가주 헬로십 교회(김성계 목사)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5월 18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한인총회 서부 지역회 주관으로 임직식을

거행한다. 정재호 한인총회 감독이 참석하며 열바인온누리교회 김진환 목사가 찬양을 인도한다.

또한, 5월 23일(금) 오후 8시, 24일(토) 오후 6시, 25일(주일 1, 2부)

말씀과 찬양의 교회 담임 김종찬 목

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

최한다.

주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김성계 목사.

전화: (909) 397-5737



창립 50주년 기념 임직 및 원로장로 추대 감사예배

초 대 합 니 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빛장로교회에서는 창립50주년을 맞아, 성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신 이들을

추대하고 선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축하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25년 5월 18일(주일) 오후 4:00

■장소: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한빛장로교회
VISION153 Divine Light Presbyterian Church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제77회 학위수여식 성료

한국부 박사 10명, 석사 11명 졸업
이위연 박사 철학박사학위 취득

미주리주 캔스اس시티에 소재한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이 지난 5월 2일(금) 제77회 봄학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50 여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취득하며, 교회와 학교, 선교지 등 속한 사역의 현장을 섬길 준비를 마쳤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한국부는 박사원 10명, 석사원 11명으로 총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수준 높은 논문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성경사역학 철학박사학

위를 받은 이위연(Dr. Peter Lee) 박사는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본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와 지역교회의 실천적 원리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문을 완성했다.

또한, 목회학, 교육목회학, 교육학 박사학위의 프로페셔널 박사 논문의 경우,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사역 현장에 적합한 연구인 동시에 실제적 기여를 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미드웨스턴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학위수여식을 통해 복음 중심의 신학 교육을 받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2024년 12월 제76회 졸업식에서

300여 명을 배출한 데 이어, 이번



제77회 졸업생 단체사진. ©미드웨스턴 한국부 제공

졸업식까지 포함하면 지난 한 해 동안 500명이 넘는 졸업생이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1,000명에 가까운 재학생이 수

학 중이며, 특별히 중국부는 지난 겨울 졸업식부터 꾸준히 석/박사 과정에서 졸업생을 배출하며 양적·질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교지에 있거나 미국 본교 졸업식에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미드웨스턴의 부총장들과 박성진 학장이 함께하는 졸업 감사 예배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130여 명의 학우 및 방문자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입학 등 학위과정 문의는 한국부 사무실의 김동규 팀장(Tel. 816-414-3754, ks@mbts.edu, www.mbtbs.edu/ks)에게 하면 된다.

미드웨스턴 한국부 기사 제공



칼라 워십댄스 선교회 LA 방문

5/18(주일) 오전 어노인팅교회, 저녁 밤상교회, 19일(월) LA지역

시카고에서 시작된 칼라 워십 댄스 선교회(대표 유미란 목사)가 5/18주일 전후로 LA지역을 방문하여 여러 곳에서 예배 중 찬양을 드린다. '칼라 Kallah'는 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주님의 신부된 이들이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2011년에 창단하였다.

그동안 미국 여러 교회 또 해외 선교지 소수 민족을 찾아가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며 중보기도 하는 워십 댄스 사역을 섬겨왔다.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어노

인팅교회(라 크라센타, 신경섭 목사) 방문을 시작으로 저녁 예배는 밤상교회(빅토리아, 무디 고 목사), 다음 날 월요일은 LA지역의 노인 대학과 양로원을 방문한다.

유미란 목사는 "단원들이 자비량으로 참여하는 사역으로 주말 또 주초 휴가를 내어 LA를 방문합니다. 여러곳에서 워십댄스로 예배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부된 마음으로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유튜브에서 kallahworship을 검색하면 이들의 공연을 볼 수 있다.

문의: 773-339-1657

kallahworship@gmail.com

월드쉐어 USA 연합 선교음악회 5월 18일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5월 18일 오후 6시 30분 미주 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제2회 연합 선교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 모든 수익금은 아이티 빈티 트루드니프의 소망학교(교장 다니엘 쪽제 목사) 건축기금으로 전달된다.

이번 음악회에는 하나님과, 로스앤젤레스 챔버 콰이어(LACC), LA 남성선교합창단, World Share USA 주사랑 여성 합창단이 함께

참여해 남가주의 오월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월드쉐어 대표 강태광 목사는 "음악과 영성에서 호평받는 합창단들이 모여 선교음악회를 갖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음악회 주제처럼, 위로를 전하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객들에게, 합창단원에



계,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일구는 아이티 소망학교에 위로가 되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제2차 차세대 목회자 컨퍼런스

7월 14일~17일, 콜로라도
미주성결교회 4050 목회자

AEU 미성대학교에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며, 차세대 목회자들(4050)을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제2회 컨퍼런스는 "다음세대 선교와 목회"라는 주제로 7월 14일~17일(월~목)까지 콜로라도 볼더에서 진행되며,

컨퍼런스 후 선교적 교회로서 소그룹 모임을 위한 자료도

제공된다.

이상훈 총장, 김상인 목사(움직이는 교회), 남빈 목사(홍대 뉴송교회), 김의진 교수(AEU 미성대학교)가 강사로 참여하고, 미주성결교회 4050 목회자 선착순 30 가정을 초청한다.

참가비는 \$100이며, 참석시 항공비가 지원된다.

주디 한 기자

문의: 미성대학교 학생처장 서신형 목사(859-351-1338, deanofstudents@aeu.edu)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안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NEW 2025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5 HYUNDAI Elantra Hybrid
Blue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Frank Kim Sean Kim Jae Lee

714.331.3855 714.914.8414 213.999.3935 213.276.8959 213.839.3332 949.433.1378 323.823.0682 213.605.2886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정의 달 스페셜

0%
APR Financing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한인 메카닉 서비스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NEW 2025 HYUNDAI Kona SE

NEW 2025 HYUNDAI Ioniq 6 Limited RWD

NEW 2025 HYUNDAI Ioniq 5 Limited RWD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나 조이스리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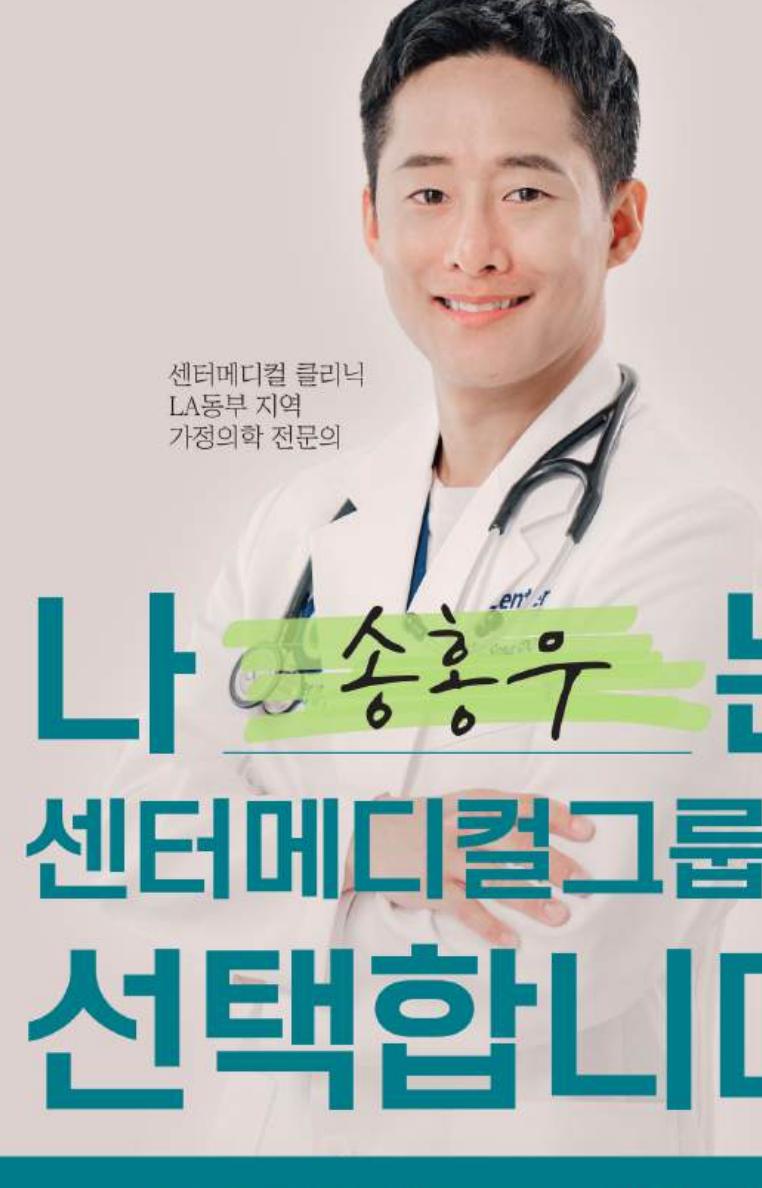
하루에 몇 명을 진료했는지보다, 환자 한 분 한 분과 진정성 있게
마주하는 진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특히,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안고 계신 어머님들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한인 사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714-519-3024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나 송홍우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LA 동부 지역에 계신 시니어분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제 지식과 진심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부모님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626-363-4661

19115 Colima Rd, Unit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나 임유일 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저는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함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턱관절 문제로 오랜 시간 삶의 질이 떨어진 채
지내오신 분들이 **보톡스와 PRP 주사치료**를 통해 편안함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진료**를 실천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714-583-8569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나 고제득 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온 1.5세로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조울증 같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치매, 수면장애, 공황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지친 분들까지,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자 중심의 따뜻한 진료, 그 삶에 **온기를 더하는 길**을
저는 지금 **센터메디컬그룹**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플러튼 지점 714-519-3024
가든그로브 지점 714-583-8569
로렌하이츠 지점 626-363-4661

센터메디컬그룹

“MZ세대 선호하는 효과적인 설교 시간과 방법, 내용은...”

한국실천신학회(회장 박은정 교수) 제96회 정기학술대회가 5월 10일 용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정인찬 박사)에서 '한국 기독교 140주년, 실천신학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총 14차례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정재웅 박사(서울신대)의 '탈교회 시대 MZ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라는 제목의 설교 분과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정재웅 박사는 "MZ세대가 주요 교회 이탈자 그룹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소통할 설교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다"며 "MZ세대는 1981-1995년 출생자인 밀레니얼 세대와 1996-2012년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다. 이들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2,39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6.4%에 해당하는데, 이는 1955년 전 출생한 베이비부머 전 세대(15%)과 후 세대(1955-1969년, 22.3%), X세대(1970-1980년, 16.1%)를 모두 합한 인구와 거의 비슷한 주류 인구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MZ세대는 민주화와 경제위기라는 역사·문화적 경험을 공통적으로 경험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을 거부하고, 개인의 주체성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을 추구한다. 또 집단 추구 이념이나 목표



정재웅 박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표하고 있다. ©한국실천신학회

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기보다, 조직이 구성원 생명과 안전 및 행복 등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집단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추구하는 바와 부합하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MZ세대는 역사상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 풍요와 안정이 결코 영속적이지 않고 그들의 기대와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도 함을 알고 있다"며 "면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당장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플렉스(Flex)나 율로(YOLO), 탕진잼 등 경제적 과실을 지금 누리고자 한다. 그 이면에는 불안함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경향도 있다. 경제위기로 촉발된 사회적 지위 불안이 타인과 협력을 통한 공존보다 개인의 생존 및 행복을 지향하는 개인화를 조성하고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디지털 기술을 어린 시절부터 숨쉬듯 자연스럽게 경험했다. 디지털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은 하이パーテ스트성(hypertextuality), 상호작용성(interaction), 상호연결성으로 대표된다"며 "아날로그 미디어에 익숙한 기성 세대들은 콘텐츠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반해, MZ세대는 능동적 콘텐츠 창조자이자 겸열자이다. 미(Meme)처럼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편집

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정보 수집부터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의견 수렴 및 평가 등을 할 때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종합하자면 MZ세대가 경험한 민주화, 경제위기, 디지털 혁명은 모두 민주적 의사소통 방식을 일상화하면서 개인화된 의식을 강화한다"며 "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MZ세대는 개방적·수평적·창의적·다감각적·다성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인쇄 문자매체의 폐쇄적·수직적·일방향 의사소통 방식보다 선호한다"고 정리했다.

정재웅 박사는 "MZ세대는 이전 세대의 종교성을 거부하고 탈종교성을 형성시키는 상황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의 탈종교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MZ세대의 종교 이탈과 교회라는 종교기관 이탈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며 "속칭 '가나안 성도'는 2012년 10.5%에서 2023년 29.3%까지 증가했다. 특기할 점은 MZ세대의 탈종교·탈교회 현상 속에서 예배와 설교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정 박사는 "신앙성장을 위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2012년에는 63.6%가 '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라고 답했으나, 2023년에는 이것이 28.3%로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 TV, 유튜브 등 미디어'는 1.2%에서 19.1%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MZ세대는 설교를 통해 신앙적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설교가 신앙적 도움을 주거나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후에는 자신의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그는 MZ세대 설교자와 청중의 설교에 대한 이해와 평가와 실태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탈교회 현상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를 도출하기 위해, MZ세대 설교자 200명, 교회 출석 MZ세대 600명, 교회 이탈 MZ세대 3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서 먼저 '설교가 교회 이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MZ세대 청중들은 설교가 상당 부분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공감했고, 신학적·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설교가 교회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설교라고 응답했다"며 "다만 차순위 응답에서 출석자들은 권위주의적 설교, 이탈자들은 지루한 설교를 선택했다. 이는 출석자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형성돼 있어 설교 내용이나 설교자와의 관계가 교회 이탈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이탈자들의 경우 설교 자체가 흥미 있는지와 자신에게 적절한지가 중요했다"고 해석했다.

김진영 기자

[1면 "북한구원·통일한국 이루고"에 이어서]

이날 강사로 나선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는 최근 국제정세가 한반도 자유통일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경제력과 군사력 전반에서 내구력이 한도에 이르렀고,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심각한 내부 위기를 겪고 있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한반도 통일과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계 대전략은 최대 도전자 중국을 제압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오래, 가능하면 영원히 유지하는 것으로,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지정학적 '린치핀'으로 중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통일은 통일을 원하

는 세력의 힘이 반대하는 세력의 힘을 능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은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반대한다. 일본도 한반도 통일에 반대했으나 최근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호했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상황으로 통일은 어느 날 '산사태'처럼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박사는 "한국교회의 사명은 북한동포들을 3대 세습 독재체제의 명예로부터 풀어주는 것"이라며 "예수한국, 북은통일, 자유주의 강대국이라는 통일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세우고 이를 이뤄낼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교회 안팎의 대적에 맞서 '피 흘리기 까지' 싸우며,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을 막아서는 정부가 세워지도록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예

록 19장 14~15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사탄과 그의 군대 사이에는 세상 끝날 까지 전쟁이 계속된다'며 교회 외부에서 휩박을 가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공산주의, 주체사상, 차별금지법 등을, 교회 내부의 강력한 미혹의 세력으로는 용공·해방신학과 퀴어신학, 성경비판신학 등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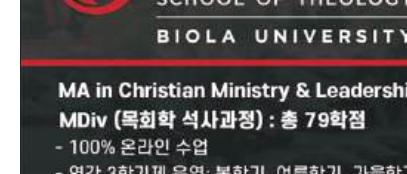
그는 "서구 기독교에서는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학교에서 성경비판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18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하는 입법·행정·사법의 전방위 공격을 막아오고 있다. 또한 매년 퀴어행사에 대항하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해 수십만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군대에 전쟁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한 승리의 방법도 알려주셨다"며 "그것은 구원의 전신감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저녁집회에서는 박한수 제자 광성교회 담임목사가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요엘 2장 12~14절의 말씀을 선포했다. 박 목사는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점점 훈탁해지는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며 둘째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 하신다"며 "심령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오늘 유력한 대선후보 진영에서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교회는 퀴어행사 주최측에 기자회견 장소로 교회를 내주었다"며 "악을 보고 침묵하면 악한 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악이 대세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에 대항하는 자이다. 거룩과 성결로 허리를 동이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했다.

이후 기도회를 인도한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국가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교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움직임, 현법재판소의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그리고 성오염 교과서를 통한 교육붕괴 현실을 '국가적 죄악'으로 들었다.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보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장 인사말

탈보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모집 요강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보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유대교의 하나님은 같은가요?

[아일레 선교칼럼] 무슬림 복음전도 5단계

무슬림에게 전하는 복음 5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 이슬람의 발생지는 어디인가요? 2단계: 무함마드는 누구인가요? 3단계: 꾸란은 어떤 책인가요? 이에, 이번에는 4단계: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가요?를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주제에 대한 이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서, 기독교는 어떻게 맞서 복음을 전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가요?

이슬람의 주장: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절대자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에 따라 이스마엘의 후손이면 이슬람이고 이삭의 후손이면 유대교와 기독교일 뿐, 모두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반박: 같은 하나님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이이고, 꾸란

6:74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아자르입니다. 아버지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을 뿐, 서로 다른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서로 다른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슬람의 알라는 기원전 6세기부터 요르단 페트라에서 살던 아랍계 나바티안 민족이 섬기던 우상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685년 우마이야 왕조 제5대 칼리프 아부둘 알 말리크가 왕이 되면서, 우상 알라를 절대자 창조주 유일신 알라로 바꾸어 섬기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의 알라가 시작됐습니다. 그 증거는 691년 아부둘 알 말리크가 예루살렘에 바위돔 모스크를 지어 놓고 이슬람 역사상 최초로 모스크 벽에 샤하다를 기록한 것입니다. 샤하다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는 신앙고백입니다. 그럼 알라는 무슨 뜻일까요? 알라는 '알일라'의 줄임말로, 뜻은 '그 하나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God'입니다. "항상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꾸란에도 하디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반박: 같은 하나님입니다. 예언자인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이이고, 꾸란



▲메카에서 성지순례하는 이슬람 교도들. ©픽사베이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출 3:14)"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입니다. 간단히 줄여 "I am", "나는 있느니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항상 우리와 함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요 3:16).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기 위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슬람의 알라는 항상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율법에 따라 사람이 선행을 악행보다 하나님으로 더 많이 행하면 죽은 후 저 세상에서 알라가 심판한 다음 천국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조사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 70%가 부정적이고 30%만 긍정적이어서, 아무리 노력해

도 선행이 아니라 죄악이 더 많아

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늘에만 계시는 알라는 지켜만 보고 계시니, 사람

으로서는 그저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요 3:16). 그러니 사람

으로서는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왜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도 천사도 동물들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으로 보내면

다시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고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창 3:15).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이시면서 죄 없는 참 사람이십니다(요 1:14).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느니라", 영어로 말하면 "Before Abraham was even born I am: 나는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셨고(요 8:58),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죄 없는 참 사람이시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질문 1. 그럼 예수님은 어떤 땅에 죄인을 구원하셨나요?

대답: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는 법대로, 예수님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됐고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새 생명의 삶을 얻게 됐습니다(롬 5:18, 고후 5:14, 룸 6:4).

장창의 목사

교회 들어와 압수수색, 종교의 자유·정교분리 위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경찰이 세계로교회에서 손현보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규탄했다. 예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 제20조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는 일제 강점기와 같은 강압적 폭거로써 종교시설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목사와 얼마 전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던 정승윤 후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손 목사와 정 후보가 세계로교회에서 대담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예자연은 그러나 "손현보 목사는 주일 오전 2부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기에 평소처럼 설교시간을 이용해 질문



예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예자연

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손 목사가 3월 23일 주일 설교 시간에 마이크를 이용해 '4월 2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부산시 교육감

선거일이예요…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찍으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하잖아요"라고 설교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분명 손 목사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경찰과 법원에서 교회시설 그것도 담임목사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사건으로 참담한 흑역사이며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이며 최악의 인권탄압이라고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아래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①종교시설(교회당 내

부 및 담임목사실)까지 들어와 과잉으로 압수수색한 공권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②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 있다"며 "분명 손 목사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경찰과 법원에서 교회시설 그것도 담임목사실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최초의 사건으로 참담한 흑역사이며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이며 최악의 인권탄압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①종교시설(교회당 내

김진영 기자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 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힙

장점 2
커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 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영국교회의 ‘조용한 부흥’ “영적 기류에 변화 감지”



▲영국성공회 예배 모습. ©Facebook/Church of England

최근 몇 주간 영국 전역에서 교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아울러 성서 판매량 증가, 교회 출석률 회복, 무신론을 표방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 변화 등 영국 사회에 ‘조용한 부흥’(quiet revival)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부활절 직후 공개된 다수의 보고서와 일화들은 점점 더 많은 영국인, 특히 교회를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 내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는 올해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복음주의자 필 뉴스(Phil Knox)는 영국복음연맹(Evangelical Alliance UK)에 기고한 글에서 “단일 통계로 보면 단순한 이상치일 수 있지만, 최근 일련의 데이터는 분명한 주제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경 판매량 증가, 여론 조사 결과, 교회 지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영적 기류에 눈에 띠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는 “부활절 아침 제 소설미디어 피드는 전례 없이 불비는 교회의 모습들로 가득했다”며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부흥을 일으키

실 수 있다는 믿음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흥을 향한 불꽃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강력하다. 우리는 조심할 수는 있지만 냉소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교회가 새롭게 찾은 이들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한 번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환대받는 공동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시기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기도와 복음 전도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며 “수학의 때가 왔을 수도 있다. 열매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익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단지 동역자에 불과하다. 지금이 완전한 부흥의 순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찌면 우리는 첫 열매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러한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영국복음연맹은 오는 6월 ‘조용한 부흥’의 실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300명의 새신자들을 심층 인터뷰해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교회로 이끌었는지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암 이겨낸 한 신자의 고백



©Unsplash/Insung Yoon

벨기에 연방의회가 안락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식이 명확할 때 서명한(안락사) 의도 선언서가 있다면, 향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2002년 제정된 현행 안락사법을 크게 확장하는 내용으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리적·의학적 우려도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거세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이리나 드 노프 의원은 “환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할 권리가 있다”며 “이 법은 오히려 조기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특히 치매 초기 환자들이 인지능력 상실 전 안락사를 서두르게 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 법안은 그들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024년 9월 4일에 의회에 제출됐으며, 의료인과의 상담은 ‘권장’일 뿐 의무가 아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생명윤리 단체 IMABE는 보고서를 통해 “고통이 예측되는 이유만으로 안락사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윤리적으로 위험하다”며 “치매 환자의 고통을 단편적·기능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영적·관계적 차원을 무시한 것이며, 인간이 느끼는 의미와 사랑, 공동체 속의 소속감을 배제한다”고 비판했다. 신경학자 에

릭 살몬 교수(리에주 대학)는 “치매 환자들도 여전히 정서적 교류와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이들을 단순히 ‘식물인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태도를 경계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을 보장하고, 환자가 생전 의향서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MABE는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결정적 순간에 외부의 판단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과 개신교 진영은 모두 이번 개정안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잘못된 해법이라고 경고한다. 벨기에개신교연합회의 한 목회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는 죽음을 유도하는 대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지만, 신학자들은 이를 인간의 한계와 죄성에 대한 망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개혁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버 교수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을 통해 이뤄지며, 자기 파괴적 선택은 자유가 아닌 왜곡”이라고 했다.

한편 영국에서도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유사한 윤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크리스천메디컬펠로우십(CMF)은 이에 대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신미셀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김성식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청년초성경부 주일 오후 2:00
-로 오후 3:00

LA 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예배에 오전 7:30 본당
주일부예배에 오전 9:30 본당
주일부예배에 오전 11:30 본당
주일부예배에 오전 12:30 본당
주일부예배에 오전 13:15 본당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주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김재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온기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oflovechristianchurch@yahoo.com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한현종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1
T. (213) 407-1600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교육부 예배 오전 11:30

충현선교교회
5005 Edith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choonghyun.org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오전 1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9: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p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 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정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EM예배 1부 오후 9:45/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GRC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김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 1부예배 8:00am 주일 2부예배 11:00am 장유성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9:30am 새벽기도회 7:30pm
주일 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학교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장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년예배(월-금)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년부 오전 9:30, 11:30
한국어예배(월-금)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밸리구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성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부예배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반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일 1부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부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령청부회 오후 2:30

림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8: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30

김한요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어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오전 9:30
4부예배 오후 2:00

남성수 담임목사



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오전 9: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새세대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부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예배부서 오후 7:3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1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un@hanmail.net

주일 1부예배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1부예배 8:00AM 금요찬양예배 7:45 PM
주일 2부예배 11:00A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5:20(월-금)

“美 교회, 사역에 AI 도입… 목회자들 설교에는 활용 안해”



인공지능 AI(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미국 전역의 더 많은 교회가 사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2025 교회 기술 현황'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종교 및 비영리 부문을 위한 선도적인 결제 및 참여 솔루션 제공업체인 푸시페이(Pushpay)가 작성했으며 엔지븐(Engiven), 체커(Checkr)와 협력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는 2월 약 8천명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수집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인공지능(AI) 사용이 80% 증가했지만, 특정 업무에만 국한되었다.

연구원들은 “인공지능(AI) 도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목회 콘텐츠 제작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여전히 꺼린다.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AI 사용자 중 신앙 서적, 설교, 목회 관련 아디어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4분의 1도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AI 활용 사례는 이메일, 이미지,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콘텐츠 제작 및 편집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AI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AI를 활용해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패턴은 반드시 놀라운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 그중 다수는 AI를 주목받기 훨씬 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며, 성령을 통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신의 소명을 추구했다. 따라서 영적 리더십에서 AI의 역할은 여전히 우려의 시선으로 다가온다”라며 “하지만 일단

메리 셀 기자

시지가 공유될 준비가 되면, 지도자들은 이 차세대 도구를 활용하여 그 메시지를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라고 했다.

AI 활용에 대한 '2025 교회 기술 현황'(State of the Church Tech 2025) 보고서의 결과는 신앙 생태계를 연결하는 선도적 기술 플랫폼인 글루(Gloo)가 인텔의 전 CEO인 팻 켈싱어가 이 회사의 투자자 겸 회장에서 대표회장이자 기술 책임자로 역할을 확대했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왔다. 켈싱어 대표는 특히 AI를 포함한 기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루는 약 45만곳 교회, 신앙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로 구성된 미국의 신앙 생태계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데 노력다는 점을 지적했다.

켈싱어 대표는 종교 공동체가 소비자용 소셜 인터넷 플랫폼에 참여하는 데 있어 반응이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년 교회 기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지도자의 상당수(86%)는 기술이 지역 사회 내 연결을 증가시킨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시페이 CEO 케니 와이엇은 보고서 발표에서 “올해 교회 기술 현황 보고서는 단순한 통계와 데이터 그 이상을 제공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하는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창”이라며 “기술이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교회들이 기술에 접근하는 방식에 고무되어 있다. 점점 더 많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도구를 교회의 핵심적인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시키는 도구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신미셀 기자

美 테네시주, 공립학교서 男을 男이라 불러도 징계 안 받는다

미국 테네시주가 공립학교와 공공기관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개인의 선호 이름이나 대명사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명시한 법안을 제정했다. 공화당 소속 빌 리(Bill Lee) 주지사는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하원법안 1270호(HB 1270)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테네시주 의회에서 하원 77대 18, 상원 27대 6의 큰 격차로 통과됐다. 정당 간 뚜렷한 의견 차가 드러났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3명이 공화당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생·교사·직원·계약자는 특정 개인이 선호하는 이름이 그들의 법적 이름 또는 파생어가 아닐 경우,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받지 않는다. 또한 해당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사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이 조치는 해당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책임을 묻거나 불이익 또는 징계 조치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개인은 법원에 구제 요청할 수 있는 소송권도 부여받는다. 또한 공립학교 교직원이 미성년자 학생을 선호하는 이름이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 법의 보호 범위는 공립학교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 주정부 공무원 및 계약자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 보수 기독교 성향의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지켰다”며 환영했다. ADF의 수석 변호사 맷 샤프(Matt Sharp)는 성명을 통해 “누구도 자신이 거짓이라 믿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젠더 이념을 조장하기 위해 학생이나 교육자를 징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테네시평등프로젝트’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요청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일관되고 정중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인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정부를 수많은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캔자스주의 수학교사 팔멜라 리카드(Pamela Ricard)는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이름과 대명사로 불렸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 9만 5천 달러(약 1억 3,4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했다. 또 베지니아주의 프랑스어 교사 피터 블라밍(Peter Vlaming)은 유사한 이유로 해고된 뒤, 지난해 57만 5천 달러(약 8억 1,100만 원)의 합의에 도달하고 해고 기록도 삭제됐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 예배 오전 7:45
2부 예배 오전 9:10
3부 예배 오전 12:00
4부 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후 6:00, (토)오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화,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6: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제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imc.org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 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령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학급예배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천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어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church.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쁨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병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 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을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예배 8:00 중고등부(Youth) 8:00
주일 2부 예배 9:00 새벽기도회(화-토) 9:00
유아유치부 9:30 AM 새벽기도회(화-토) 9:30 AM
초등부 11:00 AM 새벽기도회(화-토) 11:00 AM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 예배 8:00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곽덕근 담임목사



온혜와 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이충환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화-금) 9: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새벽예배(화-금) 11:00
금요노원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새벽예배(화-토) 오후 6:00(화-금)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onnuribk.com/anc

주일 예배 1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onnuribk.com/anc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화-금) 9: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새벽예배(화-금)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iccc.office@gmail.com

주일 예배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 예배 1부 오전 9:45 주일 예배 1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y.org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lkcc.org/lvcc/index.php

주일 예배 1부 오전 11:30 AM 주일 예배 2부 오후 1:30 PM
수요예배 오후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 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 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0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TOWING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크피(Beauty College) 최대 한국인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시니어 비전 & 성경학교

풀러턴 지역에서 시니어 비전 & 성경학교가 오는 5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3일간 오렌지 한인교회(정유성 목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주최측은 “이번 Senior VBS는 ‘새로운 소명을 기대하고,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시니어 세대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신앙 안에서 비전을 새롭게 세우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인생 완성학(살롬 김

박사), 황금기 선교사로 살기(이성희 박사), 인생 리부트(김세나 박사) 강의 및 조약돌 아트, 도자기 아트, 손글씨 아트 등 선택 강좌가 제공되며 등록비는 \$20(재료비 별도)이다.

한편, 오렌지한인교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아침 7:30분에 교회 도서실에서 독후감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첫째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특별 찬양집회를 연다.

등록 문의: 714-871-8320



“지도자들 리더십과 미국의 안정을 허락하소서”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토마스 맹 기자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놓고 찬양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모았다.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을 맞아 로스엔젤레스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1일(목) 오후 12시 맥아더 파크 맥아더 동상 앞에서 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했다.

이날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들, 군인들, 미국 경제, 미국의 식료품 등 7가지 제목을

진유철 칼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흐르는 가정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나?' 하면서 지나친 기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가까움 때문에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아니면 '너를 위해서!'라면서 너무 쉽게 경계의 선을 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밀한 가족이라도 다나와 다른 감정과 경험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인격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격입니다. 그러나보니 산과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실망한다는 말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허물과 약함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잘 안 되는 것도 바로 용서입니다. 모두가 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처럼 힘든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닭', '상한 감정의 치유'와 같은 좋은 책을

가정의 달에 가장 필요한 것을 꼽는다면 단연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큰 위안이자 기쁨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리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다보니 '네가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느

느냐?'하면서 지나친 기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가까움 때문에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아니면 '너를 위해서!'라면서 너무 쉽게 경계의 선을 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밀한 가족이라도 다나와 다른 감정과 경험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인격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격입니다. 그러나보니 산과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실망한다는 말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많은 허물과 약함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산인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상범씨의 '진정한 화가의 실력'이란 글을 소개합니다. '화가는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이 훌륭한 것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은 아닙니다. 좋은 그림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그림솜씨가 좋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훌륭한 화가는 아름답지 못한 모델을 두고 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좋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사람도 사랑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이 가장 탁월한 능력은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도, 돈을 많이 버는 기술도 아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살롱!

강준민 칼럼

기도가 답입니다 | Prayer Is the Answer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죄아내지 못하였나이까"(마 9:28하). 예수님의 답은 기도였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마 9:29).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왜 기도가 답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며,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이며, 예견력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사 11:2).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해 주십니다.

왜 기도가 답일까요? 기도하게 되면 은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벨론의 술객들이 밝힐 수 없는 은밀한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단 2:19, 22).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날았습니다(삼상 1:20, 27).

왜 기도가 답일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인 한 사람을 쳐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하브리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시 105:4).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분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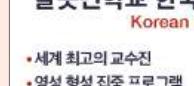
왜 기도가 답일까요? 기도할 때 매인 것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언가든지 매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행 12:5). 하나님이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천사를 옥중에 보내 주셨습니다. 천사가 옥 안에 임하는 순간 베드로를 매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행 12:7). 매닫혔던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행 12:10). 기도할 때 매인 것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가 기도할 때 닫혔던 그녀의 태 문이 열려 아들을 날았습니다(삼상 1:20, 27).

왜 기도가 답일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인 한 사람을 쳐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하브리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시 105:4).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런 깊이에 하나님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なり"(히 4:16).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천사를 통해 도와주십니다(단 6:22; 루 22:43). 좋은 만남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느해미야가 기도할 때 애달사사다 왕이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 중에 자주색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도움을 받았습니다(행 16:13-15).

기도가 답이 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시 32:5, 66:18). 말씀을 불하고 기도하십시오(요 15:7).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막 11:24; 약 1:6-8).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기도하십시오(눅 18:1-7).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왕상 18:44).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였습니다(약 5:17).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감사 기도는 간구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단 6:10).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보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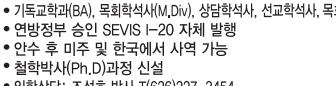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온라인 프로그램
- 설립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Tel: (213)385-2332

www.biola.edu admissions@biola.edu



미성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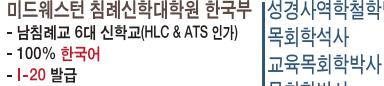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환 박사 Tel(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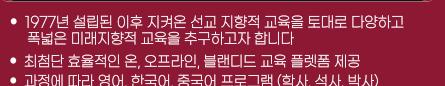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관지향적 교육을 주고자 합니다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일학문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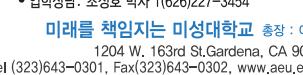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성경학, 음악학, 기종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8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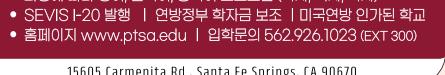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P@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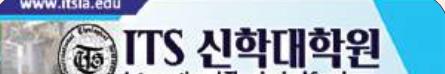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wn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9547 EXT.#112/admin.kore@itsl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기도 오전 9:30 오전 11:15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이미애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화요예배 금요예배 오전 10:00 오전 10:00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화요예배 목요예배 토요새벽예배 오후 12:00 오후 12:00 오후 7:30 오전 6:30 이현우 담임목사 His Presbytery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 (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 (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주일학교 목요중보기도회 새벽예 오전 11:00 오전 11:00 저녁 8:00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송재봉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수요찬양예배 저녁 7:30 오전 11:0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키록 ID : chkh0810	장경호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금요기도회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성경공부(월) 설모임(금)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11:00 오후 7:0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기도회(주일) 오전 11:00 오후 3:00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양홍규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수요예배 오전 11:00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주일 2부 새벽예배 금요예배 오후 8:00 오전 10:30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상경공부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친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EM 예배부 새벽예배 금요구성구 오전 10:00 오전 10:00 오전 6:00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 오전 11:00 오후 7:00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김창근 담임목사 놀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수요성경집회 토요 비전세박기도회 오전 11:00 저녁 7:00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놀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cd@hanmail.net	주일예배 어르신예배 금요기도회 오후 12:30 오후 3:00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TEE성경공부 낮 12:00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정용암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모든 예배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소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육자 오전 9:30 수요증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아침기도회 증보기도회 오전 11:00 오후 1:30 금요 1부 금요 2부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EM 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화~금 오후 5:30 / 토 오후 6:00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2부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후 7:30 오전 6:00(화)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서민수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12:00 오전 6:00(화~금)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목요예배 토요새벽 오전 10:40 오후 7:00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아침기도회 증보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EM 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화~금 오후 5:30 / 토 오후 6:00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2:00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 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오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이석기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수요저녁기도회 금요예배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9:00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아침기도회(온라인) 기도모임 오전 11:30 오후 1:30 오전 7:00(화~토) 오전 11:00(화) 정찬균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금요체육교 금요봉기기도회 청년부 수요(온라인) 새벽기도회 수요일 저녁 8:30 수요일 저녁 8:30 수요일 새벽 5:30 김지언 담임목사 월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오후 12:00 오후 8:15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주일학교 금요youth모임 목요보기지도 오후 2:00 오후 2:00 오후 7:00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양수용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니눔 코미 모임 오전 1:00 오전 6:00(화~토) 오전 6:00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주일성경공부 수요기도회 오전 10:30 오후 7:30 오후 7:30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토요보기지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주일예배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제2주 저녁 7:30 제3주 오전 5: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김용근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온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3부 제3주 오후 8:00(한국어) 제4주 목요 오후 8:00(영어) 제5주 목요 오후 8:00(한국어)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한 2:27] 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한 2:27] 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한 2:27]

김영한 칼럼

예수가 받은 십자가형,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 (I)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상임대표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刑)은 그가 사셨던 로마시대에 행해진 극형(極刑) 가운데 하나였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황제의 체제에 반란을 휙휙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로마 시대에 행해진 십자가 처형에 대한 시대사적 연구를 통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은 그 역사적 사실성이 더욱 명료히 드러난다. 독일 튜빙엔대 신학부의 복음주의 신약 신학자 마르틴 헨겔(Martin Hengel)은 그의 저서 『십자가 처형』(Kreuzigung)에서 역사적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에 대한 시대사적 연구를 함으로써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형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 글은 헨겔의 연구 성과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I.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십자가 처형

초대교회 유대인 사가(史家)인 요세푸스(Josephus)는 로마군이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디도(Titus) 장군의 유대인 고문관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함락의 모든 일을 목격한 장본인이었다. 3세기에 쓰인 그의 증언은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지를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빠 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Macedonia)의 전쟁에서 유발된 잔혹한 행위가 십자가 처형의 동기가 되었다고 본다. 십자가형은 통치자에 대하여 반기를 든 반란자들에 대한 형벌로 집행되었다. 십자가형은 범죄자들에게 수일 동안 말로 혼언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후 죽도록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통치자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반란에 대해 복수하는 원초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 이를 보는 대중적인 가학적(加虐的)인 잔인성을 만족시켰다. 통치자들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였고, 죄를 달아서, 보

는 이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하였다.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는 비인간적인 잔인성과 야수성 등 악마적인 본성의 표현이었다.

주전 3세기부터 하류계층 가운데 저속한 조롱거리로서 십자가(crux)형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헤르도투스의 책에 의하면 십자가형은 본래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고대자료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야만족들이 사용 하던 일종의 처형양식이었다. 로마인들은 야만족이 사용하던 십자가 처형을 야만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노예 등 하류계층이나 체제에 대한 반란자들에게 사용하였다. 로마시대의 처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질을 하고, 처형당할 자가 가끔 처형장소까지 형틀을 메고 운반하도록 한다. 거기서 그를 양 팔을 벌린 채로 못 박은 다음, 일으켜 세우고 조그만한 나무 못으로 발을 밭여놓는다.

로마 네로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 BC 4?~A.D. 65)는 십자가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서 십자가들을 보았다. 그 십자가는 한가지 모양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어떠한 자의 머리는 꺼꾸로 땅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십자가에 처형당

한 자의 국부는 창으로 찔려 있었다.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교수대(絞首臺) 위에서 양팔을 뻗은 채 처형당하였다.”

세네카는 삶을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의 고통에 비교하였다: “고통을 잊게 하는 일, 즉 숨을 거두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상처를 짓누르며, 교수대(絞首臺)에 매다는 일은 가치있는가?” 세네카는 고대문학에서 유래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 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四肢)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몰골은 흉악해졌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몰아 쉬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못으로 박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다. 최소한 매질은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행해졌다. 먼저 행해진 고문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고통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십자가형은 무엇보다 고통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취하여진 것이다. <계속>

민종기 칼럼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노래로도 부르고 수백 번 들어서 저절로 외운 성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셔서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말씀은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곧 타락한 구조나 체제, 혹은 악한 질서를 성부께서 사랑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제국의 문명, 억압적 구조 그리고 양극화로 신음하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다. 오래전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억압적 체제의 문제를 다룬 토마스 헹크스(Thomas Hanks)의 책명, “하나님이 제3세계를 이처럼 사랑하사”(God so loved the Third World)가 생각납니다. 해방신학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신학적으로 조명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3 세계보다 북한에 더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최근에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KCMUSA)에서는 “제1회 통일신학 논문 공모전”을 열고 원고를 마감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민 사회에서 시도된 일이라, ‘기고자가 적거나 흑 없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논문 기고자가 16명이나 되는 것을 보며 기쁨과 감동이 생겼습니다. 원고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북녘의 우리 동포를 포기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아서 이처럼 평화통일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제가 ‘북한선교학교’에 참여하며 읽게 된 “예제원에서 회복됐습니다”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신다’는 명제를 더욱 확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94년 소위 북한 사람들이 짊어 죽던 “고난의 행군”은 분명 재난입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 현장에서 생존을 위하여 탈북한 수십만의 사람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중국 생활로 내몰렸습니다. 인신매매, 강제 결혼, 감금과 폭력, 불안 속의 노동과 출산, 육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내몰린 자매들이 중국에서 만난 현신적인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와 사랑의 감화는 오히려 재난을 축복으로 이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양육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예수제자훈련원을 경험한 20여 명의 탈북민 형제, 자매의 간증입니다. 여기서 써 내려간 이야기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당했던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가장 자유롭고 유복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때, 지구의 다른 한구석에서는 인권의 사각지대, 폭력과 불법으로 부르짖는 사람의 아픔이 있다는 사

실에 저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이 또한 나와 같은 언어와 혈통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깊은 비극과 비참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순간이 됩니다. 중국에서 천사처럼 나타나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그들의 피난처입니다. 선교사는 돌베개를 베고 고난의 잠을 자는 이 시대의 야곱에게 임한 천국에 이르는 계단, 곧 벤엘의 하늘 사다리였습니다. 구겨진 인격과 상처, 잘못된 이념으로 파괴된 우리 혈육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신된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복음과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탈북민의 기록은 아픔의 기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기록이 됩니다. 이미 각종 고난과 불합리와 우상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은 새 생명 가운데서 남북이 하나 되는 연합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통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념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 열매는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격에 있습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원벽한 가구
-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들크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이커리,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이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타주이사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번호 1-877-580-2424 삼우수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울린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 | | |
|--------------------|-----------------|--------------------|
|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 부황 20회 (혈액순환) | - 훈육 1시간 |
| - 뜰 10회 (체온상승) | - 마사지 30회 |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

테라 P90의 효과

- | | | |
|------------------|--------------------|-----------------|
|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 피로에 도움 |
|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 면역건강 보조 |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 - 신진대사에 도움 |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 시력향상에 도움 |
|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 폐와 심장기능강화에 도움 |
| - 수면장애에 도움 | - 지방연소에 도움 | |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뼈를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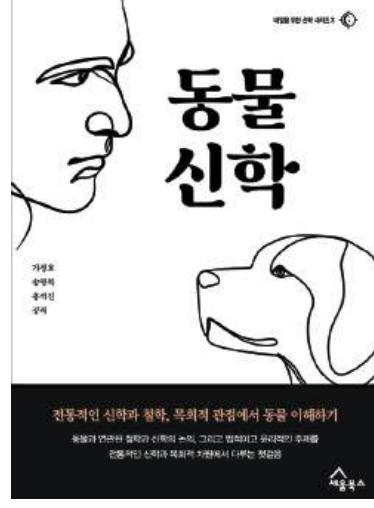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현대인에게 중요한 동물신학

반려동물도 죽은 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동물신학
가정호 · 송영목 · 흥석진 |
세움북스 | 364쪽 |
20,000원

동물에 관한 철학과 신학,
법적 · 윤리적 논의를
전통적인 신학과 목회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연구 · 치험서

동물에 관한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품는 노력

섣부른 결론보다
더 깊은 탐구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타' 같은 책!

'반려동물'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흐름과 이슈를 논하다

피조물의 정지기로서
신양인이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계몽주의 이후 인식과 사고의 중심이 신(神)에서 이성으로 전환되면서, 윤리에 대한 다양한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판단을 신학적으로도 요구하면서 생태신학, 식물신학, 동물신학, 공공신학, 페미니즘, 나무신학, 환경신학 등이 등장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뒷간신학(theology of toilet)까지 제안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그 중 '동물신학'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애완동물은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긴다. 미국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지내는 비율은 70%를 육박하고, 한국도 24%의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애완동물이라는 명칭도 '반려동물'로 바뀌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정에 전화하면, 평상시에도 애완동물과 함께하지 못하는데 주일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죄책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동물신학〉은 세 명의 목회자와 신학자가 신학적·철학적·목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경신학에서 본 동물신학을 쓴 송영목은 광범위하게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서술하며 논지를 펼치고 있다. 동물학부문에서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논구하며,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동물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은 없다는 보수적 논리와 함께, 동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특유한 사명을 찾을 수 있다는 유연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다양한 동물을 언급한다. 송영목은 성경에서 동물은 인간과 대등한 피조물이 아니고, 성경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동물을 사람에게 빗대어 은유적 혹은 신학적 의미로 언급된다고 말했다. 동물은 반려 대상이 아님도 분

명하게 지적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반려'의 의미는 3가지인데, 동물을 사람의 친구와 동역자, 반려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에, 함께 지낸 동물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동물에게 기독교 장례 의식을 치르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펫로스 증후군(pet-loss,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이 내 곁을 영영 떠나가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우울감, 상실감)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반려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펫과의 교제보다 더욱 중요함을 기억하고, 동물에 감정을 이입해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철학적·법학적 관점의 논지다. 과거 철학자들이 가졌던 동물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동물지』를 통해 500여 종에 달하는 동물을 관찰하고 기록해놓은 백과사전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 동물은 감각적 존재로서 삶의 경험을 축적하고 그에 상응하여 행동하는 존재였다. 동물도 감정은 있으나 이성은 없기에, 이성을 가진 인간은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물에 대한 관심은 데카르트의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데카르트는 '동물은 기계다'라고 했다. 이 명제는 동물이 기계적 작동이 아니라,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 작동 기계임을 의미했다. 즉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자연 법칙을 따르는 신적 기계였다.

동물은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같은 요인으로 서식지를 잃어버리거나, 급격한 생태계 변화로 관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데카르트의 세계관에 의문을 가진 철학자는 마틴 하이데거였다. 그는 데카르트의 존재론을 자연과 정신의 대립으로 정의하면서, 인식 주체인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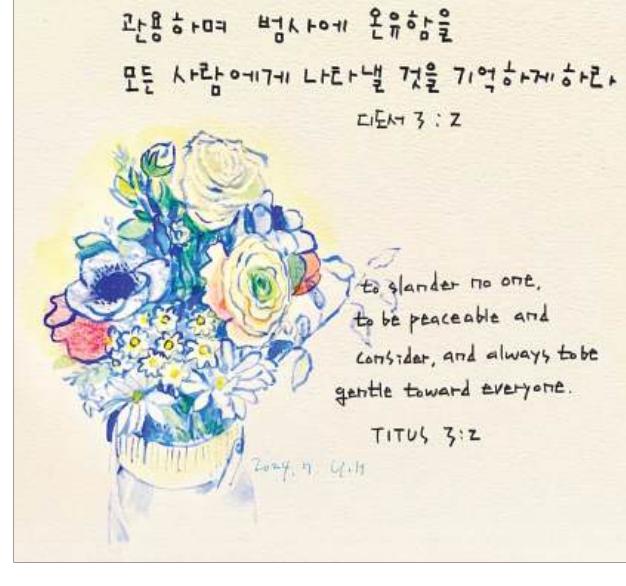
▲고양이. ©픽사베이

사물을 분리하고 대립하는 위치에 두었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하이데거는 데카르트의 '동물은 기계다'에서 '동물도 타자다'라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변화는 그동안 철학적 핵심인 인식의 주체가 '나'로부터 출발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타자'로의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타자의 철학은 결국 '우리도 동물이다'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동물의 존재를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닌, 동물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논자는 인식이 전환된 근거를 구야 성경에 서 말하는 율법에서 동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에서 찾아왔고, 현대법으로 제정된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했다. 특히 멸종과 고통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동물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긴급성을 논했다.

이 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해, 한국교회에 바른 신학적 토대와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기 기대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토크 셰프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사역자 챙빙!

위싱턴주 (WA), 레이시 (Lacey)에 위치한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전임(Full-time) 사역자를 모십니다.

부서: 행정 및 전임 부목사 (Full time)

1. 지원 자격

- (1) 신실하게 팀 사역하실 목회자, 정규 신학교 졸업자 (M. Div)
- (2) 이중언어 가능하신 분
- (3) 교구사역 및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
- (4) 미국에서 거주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2. 지원 서류

- (1) 이력서 (가족사진),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간증문
- (2) 최근 설교 영상 또는 설교 영상 링크
- (3) 신학교 졸업 증명서, 목사 인수 증명서
- (4) 추천서 (목사-2인): 목회자 2인 중에서 한 분은 현재 담임목사

3. 서류제출 및 마감

- 모든 서류를 ocp91@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마감일자: 6/21(토) (사역자를 구할 때까지)

4. 문의 허재영 목사: (253) 282-2322, 저희 교회는 KAPC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에 속한 교회로 홈페이지(www.kocpc.org)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Olympia Central Presbyterian Church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Website: www.kocpc.org

박숙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 (2)

정치적 순교자 본회퍼, 기독교적으로도 순교자인가?

정치적 정의로 기독교적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정의, 구약성경에 쓰이는 개념
하나님 율법에 의해 규정된 것
공의, 신약성경에 쓰이는 개념
영원하고 보편적인 善의 기준
정의, 기독교적 공의 하위 개념
공의 구체적 실천 원리가 정의

민주주의적 정의와 기독교적 공의의 차이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미국 저명한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우리 시대에 던졌던 질문이다. 샌델의 정의는 세속주의 정치철학과 윤리학 관점으로 규정한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이 규정한다. 그렇기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기독교에도 '정의'라는 개념이 있다. 주로 구약성경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대하 31:20)" 같은 성구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정의는 샌델의 철학적 정의와 달리, 인간이 규정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다. 이런 맥락에서, 신약성경에서는 '정의'란 말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공의(righteousness)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공의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바, 영원하고 보편적인 선의 기준을 말한다. 이를 유념한다면 공의와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도 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히 불변하는 보편적 선의 원리이고, 정의는 이 공의를 현실 사회에 적용하는 구체적 실천 원리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독교적 공의의 하위 개념인 기독교적 정의는 공의의 내용을 벗어날 수 없는

제약을 갖게 된다. 마치 법률이 헌법에 근거해 제정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늘 공의를 살피면서 정의의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늘날 세속주의 사회에서는 공의란 개념이 일상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런 경향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의 헌법적 정의는 당대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 국민주권과 인권보장 원리에 어긋나는 폭정에 대해 불복종과 저항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제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에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혁명의 가장 중요한 방편은 시민 봉기와 전투였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폭력 사용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기독교적 공의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중 가장 뚜렷하게 상반되는 측면이 바로 정의를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한 태도다. 기독교적 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의를 위한 폭력의 동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일부 극단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교파들처럼 군 복무나 정당한 방어전 수행까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저런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한 권세자들에 대한 봉기나 테러 행위는 기독교적 공의가 허용하는 정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권세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서, 자칫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거역하는 데까지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본회퍼 초기 · 중기 사상, 기독교
공의 바탕 공동체 · 타자 윤리 부각
2차대전 발발 후, 사상 급격 변화



영화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는 반나치 저항단체 '검은 오케스트라'에 소속돼 활동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생애에 관한 작품이다.

정치적 정의 구현 위한 자기희생
하나님의 공의인지 반성할 필요
신앙인들 정의 모색에 오해 초래

'비종교적 기독교'로 대표되는 본회퍼 신학의 불연속성

불의한 권세에 대한 폭력 혁명과 저항을 금하는 데는 두 가지 신학적 근거가 존재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학정을 펼친 권세자들에게 징벌로 되갚아 주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원수마저)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 계명이다.

영화 <본회퍼: 목사.스파이.암살자>는 희대의 폭군이자 학살자 히틀러를 징벌하는 세속적 정의의 구현에 자신의 생애를 바친 본회퍼 목사의 일대기를 절절한 심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이 감동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이유는 기독교적 공의와 민주주의적 정의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명한 본회퍼 연구자 존 갓세이(John D. Godsey)는 신학자로서 본회퍼의 사상을 크게 초기, 중기, 후기 세 부분으로 나눈다. 본회퍼 신학 초기(1927-1933)는 주로 '신학적 기반 마련' 시기, 중기(1933-1939)는 '신학적 적용' 시기, 그리고 후기(1939-1944)는 '신학적 단편들'의 시기였다.

본회퍼의 초기 및 중기 사상에는 기독교적 공의에 밑바탕을 둔 공동체 윤리, 타자 윤리가 주로 부각된다. 반면 후기 사상에는 기독교적 공의의 유타리를 넘어서는 '비종교적 기독교'의 정의 개념이 대두된다. 초기와 중기 사상에는 확고한 연속성이 있는 반면, 후기 사상에서는 이전 시기에 찾아보기 어려운 불연속성이 확인된다.

1938-1939년 당시 본회퍼 신학, 즉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던 시기 본회퍼의 신학은 초래할 수 있다. <계속>

기독교적 공의와 민주주의적 정의를 구분하던 원래 입장을 포기하고, 양측의 융합을 시도하는 급격한 태세 전환을 보인다.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본회퍼를 둘러싼 삶의 정황의 급격한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줬다. 1938년 본회퍼는 히틀러 정권 전복을 계획한 '검은 오케스트라'에 가입했고,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본회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정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한 상황이 도래했던 것이다.

격변에 휩쓸린 본회퍼는 어떠한 이유로든 타자에 대한 강압적 판단과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았던 이전의 신학적 입장을 포기하고, 민주주의적·사회적·세속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신념을 내세우게 된다. "미친 자가 붙잡은 운전대"는 이런 그의 변화된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 발언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계는 본회퍼의 이런 신학적 전환과 그의 정치적 정의구현을 위한 자기 희생을 순전한 기독교적 제자도의 표본으로 내세우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과연 성경 중심의 복음적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받드는 것인지 진중하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본회퍼의 의거는 분명 세속적이고 정치적 의미로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기독교계에도 이렇게 정의로운 삶에 목숨을 건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려는 신학계의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그 정의가 기독교적 공의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인지 반드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영화 <본회퍼> 논조가 그러하듯, 정치적 순교자와 기독교의 순교자를 혼동하는 쳐사는 정치적 불의에 대한 신앙인들의 정의로운 대응 모색 과정에서 자칫 심각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계속>



정치적 정의 구현을 위해 '검은 오케스트라'에 가입한 본회퍼.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6/9(월)~10(화) 오전 9:00~오후 4시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ext Encountering Preaching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을 위한 설교학"

1. 왜 내러티브 설교여야 하는가?
2.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이해
3. 내러티브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4.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1
5. 내러티브 설교를 위한 구성
6. 내러티브로 본문 다루기 2
7. 내러티브 설교 작성 실습

강사: 김귀보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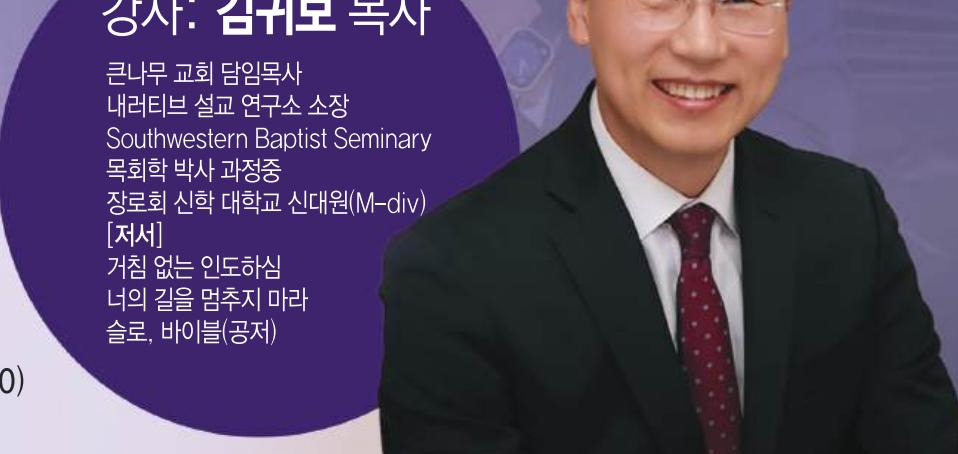
큰나무 교회 담임목사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 과정중
장로회 신학 대학교 신대원(M-div)
[저서]
거침 없는 인도하심
너의 길을 멈추지 말라
슬로. 바이블(공저)



등록: QR 코드 스캔 후 등록
등록비: 무료(교재, 점심 제공)

주관/문의: 기독일보

(213-739-0403, 213-434-1170)



예장 합동, 제62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개막

첫날 개회예배, 전체 강의 이어져

총회 정체성 지킨 기도의 금자탑
복음 외치고 십자가 말해 왔지만
삶으로 복음과 십자가 증명 필요
어려운 시국 기도로 어둠 쫓아야

예장 합동 총회 제62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5월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개막했다.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로마서 1:16)’라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는 각 노회 기수단 입장과 노회장 당선 축하패를 증정한 개막식 이후 오후 2시부터 개회예배가 시작됐다. 특히 올해 기도회에는 목사와 장로들의 아내들도 동반 참석했다.

개회사를 전한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1964년 2월 충현교회에서 시작된 전국 목사기도회, 그해 3월 열린 장로기도회는 이듬해부터 전국목사장로기도회로 통합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다”며 “목사장로기도회는 기도의 역사요 민족 복음화와 총회 정체성을 지켜온 기도의 금자탑이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예벤에셀로 지키셨고, 인도하

셨으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전했다. 김종혁 총회장은 “수많은 집회에서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말해왔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십자가를 삶으로 살았는지, 그 복음이 총회원들을 퀘뚫었는지 회개하게 된다”며 “

저 자신부터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히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나의 영광과 업적을 의식하며 살았음을 고백한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총회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고, 전국 교회가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 종회장은 장소를 제공한 이규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후 인사한 이 목사는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3일 동안 기도회가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잘 섭기겠다”며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기도회가 민족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는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개회예배는 서기 임병재 목사 인도로 부총회장 김형곤 장로의 기도, 박영만 목사(경주서부교회)의 성경봉독, 연합찬양대의 ‘하나님의 전신감주’ 찬양 후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기도불파, 기도가 답

이다(역대하 14:9-13)’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12월 이후 전국 곳곳에 계신 분들이 아프시다고 한다. 이 난관을 풀어야 한다. 후진국에서 태어나 중진국에서 자라나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뿐”이라며 “우리는 1950-60년대 피의 세대를 지나, 1970-90년대 땀으로 나라를 발전시켰지만, 2000년대부터 갈등의 시대가 됐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신앙은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 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일단 척결, 동성애 금지, 부패 정치인을 척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며 “기도의 제곱근 법칙을 믿는다. 1백 명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1만 명이 바뀐다. 1천 명이 기도하면 1백만 명이 변화되는 것이다. 오늘 7천 명이 모였다면, 제곱해서 4천 9백만 명이 변화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제대로 기도하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작년 10월 27일, 110만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기도했다. 드론으로 다 찍었다”며 “차별금지법을



기도하는 목사와 장로들. ©유튜브

반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번 기도회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외쳤다. 설교 후 민찬기 목사(예수인 교회) 인도로 김용대 목사(영광대 교회), 김종학 목사(조례제일교회), 정영기 목사(늘사랑교회) 등이 특별기도한 후 직전 총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됐다.

‘축복의 말씀’을 전한 박성규 총신대 총장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

버지로 섭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며 “하나님께서 침체된 한국교회를 생명의 군대로 만드시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후 김재원 장로(KBS 아나운서)가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유해석 교수(총신대)가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선교 신학적 유산’을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이날 저녁집회에서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장창수 목사(대명교회)가 ‘배 안의 사람, 배 밖의 사람’을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전국기독교단체연합,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자유민주주의 수호 적임자”

지지 이유: 삼권분립 확립, 악법 저지,
약자와 동행, 청렴·정직, 탁월한 행정 등

전국기독교단체연합과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등 1,200여 시민·종교단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 했다. 이들은 13

하기 위해 김문수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신동희 사무총장(새한국 수원지부)의 사회로, 권태섭 대표(민족사랑운동본부), 권경환 목사(전 오산리금식기도원 원장), 이훈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목회자모임), 노요한 상임회장(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송용석 공동대표(정의자유실천시민연대), 조규연 공동대표(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서요한 기획위원장(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이유로 일곱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첫째는

후보는 김문수밖에 없다”고 했다. 둘째는 “반성경적·비윤리적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최고의 후보”라며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법과 같은 반성경적 악법들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밝혔다.

셋째로는 “진정으로 약자와 동행이 가능한 후보”라며 “한센인들을 돋는 삶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은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평가했다. 넷째로는 “청렴하고 정직하다”며 “경기지사 선거 후 남은 선거 자금을 전액 중앙당에 헌납해 물욕이 없음과 청빈한 삶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다섯째로는 “경기지사를 두 번 연임하며 삼성반도체 평택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광교신도시 개발 등 탁월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고, 여섯째로는 “과감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좌익이 강조하는 분배는 우익의 성장

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논리를 깨닫고 즉시 우익으로 전향한 결단력의 사람”이라고 전했다. 일곱째로는 “높은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라며 “좌의 시절에도 이승만 건국 통치와 박정희의 경제 업적은 인정할 줄 아는 건강한 역사관의 소유자”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을 제안하고 만들어 통과시키고 탈북민들을 진심으로 도운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기독교단체연합과 참여 단체들은 “김문수 후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보수 이념에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역량을 가진 지도자”라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와 정의,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선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은퇴자금 30만불, 집을 페이오프 할까요, 은퇴플랜에 넣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지난 11월에 저희는 남편이 하던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팔고 이제 은퇴를 하였는데, 은퇴하자마자 한국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한국을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제서야 은퇴다운 은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보다 2살이 많은 67세인데, 당뇨가 심해지고 비즈니스도 더 이상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과감히 그 날 더 늦어지기 전에 비즈니스를 팔고 이것 저것 다하고 나니까 정말 많지도 않은 딱 30만불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셜을 받기 시작했는데 둘이 합쳐서 3,750불이 나옵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은데,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 모기지 \$1,800를 내면 \$1,900 정도가 되니까 뭐 아껴서 살면 우리들이 이 못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 팔고 남은 30만불 정도로 그냥 집을 다 페이오프를 하면 1,800불을 안내도 되니까 그러면 한달에 3,750불이 되면 또 그것도 웬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모기지는 2.5% 이자율인데 거의 27만불 정도가 남았습니다. 30만불에서 한달에 2,750불씩만 끼어쓰면서 그것으로 모기지를 내면 앞으로 12년 정도는 생활비가 3,750불 정도가 되고, 그럼 남편도 저도 80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애들에게 집을 넘겨 줘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더 나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선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돋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은퇴를 막상 하고 나서나

까도 아 생활비 계산도 해야 하고, 여려가지가 또 새롭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해져 있는 인컴에서 어떻게 생활비, 지출을 줄일까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은 선생님 계산도 해야 하고, 여려가지가 또 새롭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해져 있는 인컴에서 어떻게 생활비, 지출을 줄여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1,800불 이란 모기지를 페이오프하면서 천천히 집은 페이오프를 하시고, 나머지 더 큰 이자로 남는 돈으로 인컴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겠죠. 자다음은 예입니다.

선생님께서 비즈니스 팔고 남으신 돈 30만불을 만약 어뉴이티에 넣고 고정 인컴으로 받아 쓰시게 된다면 매년 \$25,857불이 100세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만불을 넣고 평생 찾아 쓰는 돈은 827,412불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의 인컴은 소셜인컴 3,750불에 어뉴이티에서 나오는 \$2,154,75가 되어, 저마다 한달 인컴은 5,904,75달러가 되고, 모기지 1,800불을 매달 낸다고 해도 인컴이 오히려 4,104,75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천불 가까이 인컴에서 모기지를 내도 선생님들의 은퇴가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쓰는게 되기 때문에 모기지를 갚아 나간다 해도 더 큰 돈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고, 또 이 고정 인컴에 어뉴이티는 선생님께서 통닭케어 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달에 꼬박꼬박 2,154,75센트가 들어간 30만불이라는 원금을 다 찾아 쓰기 전에는 자동으로 두 배인 4,309,50센트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면에서도 은퇴 플랜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빚은 더 베리고 싶고, 지출은 줄여야겠다는 것만을 보통 생각하시지만, 정말 이자 세를 계산하고 통닭 고기에서 은퇴 자금 30만불을 모기지를 전부 페해 헤택까지도 볼 수 있는 플랜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면 집 모기지를 다 페이오프 하는 방법이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선생님의 또 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더 자세한 내용은 개별상담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아이 백만장자 프로젝트

문선영의 머니토크

부모님은 학자금 준비 자녀들은 복리저축 세미나

5월 22일 (목), 10am

CONTACT : 626-827-9599 Email: symoonmoneytalk@gmail.com
3435 Wilshire Blvd., 14FL, LA, CA, 118763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가정의 달 특선

KISEIDO EYE NOON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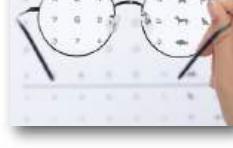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